

지역 매아리

부안 계화농협, 찾아가는 영농기술 교육 운영 호응

부안 계화농협이 농민들과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 서비스를 펼쳐 농민을 위한 농업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안 계화농협(조합장 이석훈)과 농협 안전교육원은 지난 8일 계화농협 회의실에서 조합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 주산지 현장에서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주산지현장 영농기술 교육"은 평소 바쁜 영농활동과 원거리로 인해 교육원 입교하기가 어려운 조합원들의 교육을 증진시키고 계획되었으며, 안전교육원의 "찾아가는 현장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참깨 고품질 재배기술 및 집의응답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평소 느꼈던 애로점에 대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이석훈 계화농협 조합장은 "찾아가는 현장교육 서비스인 주산지현장 교육은 영농활동으로 바쁜 조합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로 안전교육원 원장은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조합원의 영농기술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산지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새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정읍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 활동을 펼쳤다.

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정비 활동에 나서 9일까지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육의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정비반은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선정적 이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프를 비롯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을 집중 단속했고, 현지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노후된 간판은 점포주 자율 정비를 권장하며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은 안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불법 광고 수단과 음란 전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행복한 노후 위한 생활안정 지원

고창군, 560억 투입 노인복지정책 추진

만물이 생동하는 봄 고창군이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은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지난 2012년 1만6680여명, 2014년 1만7380여명, 2016년에는 1만765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1만8140여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30%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활동 △힐링 실현 명품노후 △신진장사문화정착 등을 목표로 4대 영역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친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사회활동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도시락배달 등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취미·여가 등 96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부터 공설묘지와 추모의 집 푸른 숲 자연장 사남관주공원 등 장사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인 이용을 도모한다.

이밖에도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노안대학운영 △보행보조기지원 △장수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연계 △무연묘정비 등 40여개의 중요 사업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한 앞서는 고창군만의 특별한 노인정책을 펼쳐 외롭고 쓸쓸한 100세 시대가 아닌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력 넘치는 건강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한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지역 활성화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해경 안전검사 미수 선박 특별단속

단속반 편성 이달 말까지 안전 계도

부안해양경찰서가 오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건너뛴 관내 선박(어선)을 대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전 북지부와 함께 안전계도에 들어간다.

특히 부안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

도록 어선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되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해양경찰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비정정을 동원, 해상과 육상에서 공조해 안전검사 미수 검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에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은 총 1708척이며, 이중 부안해양경찰서

관내에만 73척으로 자칫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부안해경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계도활동이 종료 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싱그러운 봄' ... 정읍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싱그러운 봄을 알리는 나무시장이 개장됐다.

정읍산림조합 나무시장은 봄철을 맞아 새롭게 들어선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 옆 서영여고 정문 부근에 나무시장을 조성 2월 28일 개장하여 4월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곳 나무시장에서는 각종 유실수와 조경수 등을 판매하고, 유리온실에서는 화훼류, 야생화, 분재 등 꽃 종류의 분소식을 전하고, 아울러,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봄맞이 특별 할인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나무시장에서는 나무심기에 적기인 봄철을 맞아 품질 좋은 나무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묘목 재배

임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묘목 고르는 방법과 심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까지 지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강한 추위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대체적으로 나무가격이 다소 상승한 추세다.

또한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이용한 소량판매와 아파트 등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화훼류와 다육, 야생화 등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신제품 및 개량종에 대한 문의와 실제 열매가 대과인 유실수가 인기이며, 복분자, 블루

베리, 오미자, 황칠, 꾸지뽕 등 약용수나 특용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고, 새봄에 마련된 희망정원의 유리온실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저렴하게 전시 판매하고 있어 어린이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봄나들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정읍산림조합에서는 지난해 1시 민 나무 갖기를 권장하고 「나무를 나눠주기」 행사를 산림청과 함께 오는 3월 17일(토)에 시행해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보급 계획하고 녹색 정읍을 가꾸는데 일조를 가할 생각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Eco 축산 청정 정읍 조성 세미나

정읍시는 지난 8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축산농가와 공무원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co 축산 청정 정읍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관례해 시 관계자는 "정읍은 축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구제역과 시 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고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오염 등 환경문제의 관련한 민원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Eco 축산 청정 정읍을 만들어 가기로 하고 이에 따른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에 주제발표를 통해 정읍축산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 이화교 교수가 '예코축산 청정 정읍 추진 당위성·방향'에 대해서, 축산생태연구소 조성백 소장이 '축산생태 및 분뇨 처리 세부실천 방향'을, 전북대학교 김일일 교수가 '정읍 축산 청정 질병 방역관리 세부

실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시민과 전문가, 축산인,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해 축산 현안 해결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조 소장은 현재 양돈 산업의 개혁형 환기 방식과 슬러리 분뇨처리 방법 등을 설명하고, 배설물의 발생 원인인 축산분뇨 자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장내 미생물 공생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교수는 구제역과 시로만 국한되지 않은 질병 방역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질병 예방과 관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세미나는 그간의 논의와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리다"며 "정읍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한우아이엘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정읍시와 한우아이엘(주)는 지난 8일 정읍시청에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과 한우아이엘(주) 백양수 대표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우아이엘(주)는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2만6603㎡(7745평) 부지에 45억원을 투자한다. 양 측은 이번 투자로 2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우아이엘(주)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읍 제2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친환경 식품 용기와 육식용 판매 생산에 이용되는 PR(폴리프로필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체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산 제품은 일본에 수출되고 대기업에 납품된다.

협약식에서 김시장 권한대행은 "정읍의 희망이자 미래 동지인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량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읍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과학산업단지에는 이원건 포텍(주)과 (주)에이씨, 한국전기전공사 등 투자협약을 체결한 총 26개 기업체가 정상 운영 또는 건축 중에 있다.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율은 한우아이엘(주) 분양을 포함 75%이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 | 750ml 2ea, 2ea/16%

GIFT SET 2 | 750ml 2ea, 1ea, 오픈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2ea/12%, 복분자1ea/13%, 1ea, 오픈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